

통 계

統計, Statistics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 사이의 종교전쟁

합스부르크가의 구교에 의한 독일 통일정책에 반하여 유럽 대제후들이 반기를 든 전쟁.

스웨덴군, 덴마크군이 독일에 진주하고 프랑스군이 나중에 진주하고... 1948년 웨스트팔리아조약으로 프랑스 승리로 끝난 전쟁이다. 그 때부터 프랑스의 유럽 영향권이 확대되고 문화적 지배가 시작되었다.

반면 독일은 점점 황폐화되고 인구는 줄었고 생산도 점점 퇴보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다시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일어서게 노력했으며 통

일 국가 건설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세를 거두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렇게 하려면 인구조사는 물론이고 거두어 들이는 국세의 규모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야만 했다. 이때부터 통계학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현상과 그 현상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어 통계학이 시작된 것이다.

이 당시 세계 정세를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역의 발달이었던 시대, 초기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에서 17 세기에 무역의 중심이 영국으로 옮겨져서 가장 중심의 역할을 런던이 맡게 되었다.

각 나라에서 물건을 싣고 오거나 물건을 사가지고 가거나 그 당시에는 배를 이용하였다. 무역선이었다.

이 무역선이 무역만을 위하여 무역하는 물건만 싣고 옮겨 재산을 늘리게만 해주었으면 그만인데 보이지 않는 전염병을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에 옮겨 가고 옮겨 왔던 것이다.

그래서 런던은 전염병을 해마다 앓았다. 이렇게 하여 의학이 많이 발전하였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런던은 해마다 사망도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만든 사망도표에서 통계적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점도 있었다고 한다.

1662년 존 그란트가 사망표의 자연적, 정치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런던 시에서 작성한 사망도표를 연구했다고 한다.

이것이 영국에서의 통계학의 시작이었다.

전쟁과 무역이 의학을 발전시키고 통계학의 태동을 가져온 셈인가?

